

大都市 地域農業의 作付體系 比較分析(I)

金 忠 實*

- I. 問題의 提起
- II. 大都市地域의 農耕地 利用 및 轉用 概況
- III. 大都市地域의 作付體系 實態와 變化推移
- IV. 作付體系의 比較指標 및 大都市 作付體系의 特徵 比較
- V. 要約 및 結言

I. 問題의 提起

經營의 成敗는 경영의 기본과제를 얼마나 철저히 인식하고 다양한 여건의 변화 속에서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 基本課題를 어느 정도 效率的으로 해결하는가에 따라 좌우된다고 하겠다. 농업경영 또한 農業의 特殊性이 인정되지만例外일 수는 없다.

그러나 農業經營의 경우는 農民의 經營形態가 보수적이어서 商業農時代를 운운하는 오늘날에도 傳統的 農業觀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그리므로 農業經營 改善을 위한 각종 農民교육을 통해 전래의 거의 획일적인 경영형태나 作付體系에서 벗어나 地域經營·經濟的 與件에 적합한 작부체계 및 경영

형태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왔다.

作付體系와 農業經營形態는 어떤 農산물을 얼마나 많이 어느때 생산하는가를 경정하게 되며, 이는 곧 개별 농가의 농업소득의 크기와 國民經濟의 농업자원 배분 및 식량자급률을 결정하는, 한 농가 또는 한 國家 농업의 구체적인 형상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와 관련하여 「複合營農」과 「地域農業」에 관한 많은 연구가 행해져 왔을 뿐만 아니라, 작부체계 및 영농형태의 합리화는 우리 농정의 과제이자 주요 전략으로 중시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것을 農政 또는 農業經營의 主要課題로 인식하면서도 이에 대한 단순한 경제논리에 입각한 소득 중심의 정태적 接近方法(國립농업경제연구소 1975; 農水 산부 1981)에는 問題點이 없지 않다.

農民의 經營形態의 보수성과 그 非效率性에 대한 비판은, 그들이 결정한 과거 또는 현재의 作付體系나 經營形態의 效率性에 관한 보다 철저한 體系的 分析을 통하여 效率性의 수준과 문제점을 보다 具體的으로 제시할 수 있는 研究가先行될 때 가능한 것이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 그에 대한 改善方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 慶北大學校 農業經濟學科 助教授。

즉 기존의 주어진 經濟的 與件下에서나 예측 可能한 經營·經濟的 與件이 변화할 경영형태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非效率性的 정도를 파악하고 그것이 改善될 경우 農業經營效率性的 제고 可能性 및 改善方向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指標를 제시할 수 있는 計劃的 研究가 요구된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전술한 研究目的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정부의 植付面積에 관한 통계자료를 作付體系란 관점에서 정리하여 먼저 大都市地域의 作付體系 및 全國平均的 作付體系를 設定하고 이를 상호비교 함으로써 대도시 근교 작부체계의 時間的·空間的 特徵과 작부체계 추이를 檢討·究明하고자 한다.

本研究의 범위는 주로 비교적 市場情報와 商業의 農業經營意識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大都市地域 作付體系의 외형적 특징과 都市間의 그 差異點을 比較分析하는 것으로 하며, 大都市別 作付體系가 갖는 經營·經濟的 效率性的 檢討는 다음 課題로 미루기로 한다.

대상지역은 資料의 制約으로 서울, 釜山, 大邱地域으로 限定하였으며, 기본자료는 公式 統計資料를 근거로 하여 각 작물별 식부면적을 作付體系로 類型化하였다. 또한 본연구를 위해 大邱

近郊에서 행한 조사자료는 표본의 제약으로 作付體系의 주된 資料로 利用하기에는 代表性이 약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公式統計資料를 作付體系化함에 있어서 각 작물의 時·空間的 배열·배치작업에 필요한 참고자료로 이용하였다.

II. 大都市地域의 農耕地 利用 및 轉用 概況

資源으로서 土地가 갖는 일반적인 主要特性으로 自然的 特性과 人文的 特性을 지적해 볼 수 있다. 즉 不動性, 不變性(永續性), 不增性, 個別性, 그리고 용도의 多樣性, 竝合·分割의 可能性, 社會的·經濟的·行政的 位置의 可變性 등이다. 이러한 土地資源의 一般的 特性과 地代論의 經濟論理가 우리 農地와 農業에도 적용된다면 일반적으로 農業經營의 保守的 性向을 인정할지도 經濟成長과 더불어 大都市地域 農民의經營에 관한 인식은 作付體系 및 經營形態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期待된다.

最近 5年間의 全國 및 3大 都市(서울, 부산, 대구)의 農耕地變化 推移를 보면 82~86년간의

表 1 지역별 경지면적 추이

단위 : ha

구 分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2~87
전 국	전체	2,180,084	2,166,636	2,152,357	2,144,415	2,140,995	2,143,430	▽ 36,654
	논	1,312,512	1,315,933	1,319,903	1,324,932	1,328,529	1,351,657	△ 39,145
	밭	868,572	850,703	832,454	819,483	812,466	791,773	▽ 76,799
서 울	전체	4,286	3,089	3,002	2,999	2,883	2,915	▽ 1,371
	논	2,276	1,550	1,499	1,432	1,341	1,471	▽ 805
	밭	2,010	1,539	1,503	1,567	1,542	1,444	▽ 566
부 산	전체	5,898	5,882	5,778	5,717	5,672	6,002	△ 104
	논	4,576	4,529	4,450	4,359	4,340	4,731	△ 155
	밭	1,322	1,353	1,328	1,358	1,332	1,271	▽ 51
대 구	전체	8,070	7,908	7,710	7,623	7,504	8,054	▽ 16
	논	4,750	4,524	4,402	4,330	4,260	4,181	▽ 569
	밭	3,320	3,384	3,308	3,293	3,244	3,873	△ 553

자료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연보」, 각년도.

耕地面積은 全般的으로 減少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대도시의 경우 畦의 轉用이 田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은 총경지면적의 변화와는 대조적이다.

全國 單位에서의 畦은 5年間 미소하나마 漸增한 반면 田은 큰 폭으로 每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바로 이러한 結果는 最小限의 主穀自給이라는 農政의 基本目標를 달성하기 위해서 實施되었던 田의 畦轉換事業과 수리안전답률의 제고와 같은 農地基盤造成事業, 畦作에 대한 價格政策의 結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도시근교의 경우에는 급격한 都市化로 인하여 要求되어지는 非農耕地의 需要가 急增해 왔기 때문에 큰 도시일수록 相對的으로 耕地轉用面積이 훨씬 많았으며, 특히 田보다도 畦의 轉用이 더 크게 나타났다. 그 主要原因은 土地의 농업용 이용이란 측면에서만 본다면, 大都市地域 農業의 經済性은 米穀 center의 畦作보다는 作付체계상 回轉率이 높은 田作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은 都市地域 農業의 特徵이 耕地 利用面에서 상식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주요한 원인은 耕地轉用의 목적에 기인하게 된다.

大都市 耕地變動推移를 보면, 1982~86의 5個年間의 變化는 매우 일관성 있는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여 준다. 同期間의 경지변화를 1986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서울의 경우 畦의 轉用은 63%, 田의 轉用은 30%라는 엄청난 耕地減少를 나타내었으며, 부산, 대구는 10%以下の減少率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부산이 대구보다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農耕地轉用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特記할 사실로 유의해야 할 점이며, 이것은 地域의 地形地勢와 人口增加, 經濟成長, 工業化速度 등의 差異에도 起

因하겠으나 그 原因과 對策에 관한 별도의 研究가 요망된다. 그러나 '87년도의 경우는 예외적인 것으로 '86년도까지 통계대상으로 하지 않은 면적을 포함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耕地利用의 側面에서 比較해 보면 年度別 耕地利用率은 1984年을 기점으로 다소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全國 畦의 최근 3年間의 平均耕地利用率은 113%이었으나 서울은 畦의 경우 106%로 3個 地域 中에서 가장 낮았다. 그러나 부산, 대구의 경우는 각각 134%, 128%로 여타 지역보다 畦을 더 집약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表 2 地域別 耕地利用 推移*

단위: %

구 분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5~87 평균
전 국	논	116	119	119	114	113	112
	밭	134	134	136	131	132	137
서 울	논	101	137	98	98	106	113
	밭	160	198	169	151	174	166
부 산	논	131	129	135	134	130	139
	밭	112	123	149	135	152	158
대 구	논	125	141	141	131	130	124
	밭	125	124	137	132	139	138

* 「농림수산통계연보」의 경지면적과 경지이용면적을 참조하여 산출함.

田의 경우 同期間(1985~87) 平均耕地利用率은 133%이었으며, 부산과 대구는 각각 148%, 136%로 全國平均과 比較해 볼 때 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서울은 166%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耕地利用은 非都市地域보다 大都市地域이 훨씬 集約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畦보다는 田 利用에 해가 갈수록 集約化가 增加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부산, 서울, 대구의 田畦 利用率을 比較해 볼 때 畦의 경우 서울보다는 대구, 대구보다는 부산의 耕地利用率이 더 큰 점으로 보아 畦利用 정도는 기상조건과 밀접한 關係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田의 경우는 大都市일수록 그 利用이 集約化되는 것

으로 나타난다.

耕地利用率에서 나타나는 이러한結果는一般的의常識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겠으나 서울의 경우 田面積의 利用에 비해 畜利用率의 현격한 격차라든가 地域別·年度別 耕地利用內容 및 그結果를 보다 분명히 이해하려면 作付體系에 관한具體的인 檢討가 要求된다.

III. 大都市地域의 作付體系 實態와 變化推移

1. 作付體系의 定義 및 表記

作付體系(cropping system)란 作物이 일정 面積 위에 어떠한 順序로 植付되는가를 時間의 前後關係로 나타낸 體系 즉 作物의 作付順序인 同時에, 일정 면적 위에 植付되는 作目間의 構成比를 나타낸 體系 즉 作付比率을 하나의 體系로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 이의 理論的 背景이 된 튀니의 「孤立國」에 나타난 經營圈에서 보더라도 都市近郊 作付體系는 自由式이었으며, 리카도(Ricardo), 브링크만(Brinkman), 뢰쉬(Lösch) 및 둔(Dunn)이 각각 주장한 比較生產費說, 土地地代, 地代式 見解(지대함수식)에 따르더라도 도시 근교의 작부체계는 일정한 형태를 갖는 定型的인 것이라기보다는 經濟性·收益性에 따라 민감하게 變하는 不定型的인 形態를 갖는 것으로 說明된다. 따라서 大都市의 作付體系는 地域間 差異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不定型的인 自由式 作付形態를 假定해 볼 수 있다.

韓國의 경우 이러한假定의 檢證 및 大都市近郊의 作付體系를 이해하려면 全國 農村의 平均 作付順序와 作付比率을 調查分析할 必要가 있으나, 大都市近郊 田畠의 耕地面積 및 植付面積

은 全體耕地面積 및 總植付面積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아주 낮기 때문에 大都市의 作付體系를 일차적으로 全國平均 作付體系와 比較하였다.

作付體系의 表記는 그 定義에 따라 가능한 한 一目瞭然할수록 좋겠으나 수많은 品目을 하나의 體系로 表示하기는 쉽지 않다. 일반적인 表記方法이 있겠으나 本稿에서는 時間의 順序의 배열을 春·夏作 및 施設栽培를 포함한 秋作順으로 表示하고 總植付面積에서 0.1% 미만은 버리고 그 이상의 作目을 대상으로 植付面積 및 그 比重을 同時에 表示하는 方法을 택했다. 단, 主要 生產部門인 基幹作目과 그것을 補完하는 從作目 및 기타 副作目들을 특별히 따로 명기하지 않고 그것을 식별하는 기준으로 農經지면적이 제약자원이란 관점에서 총식부면적에 대한 比重을 指標로 하여 총식부면적 0.1% 이상의 모든 작목을 作付體系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基幹作目, 從作目 및 기타 副作目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식부비중이 0.1~1.0%인 품목은 밀줄을 긋고 그 이상은 직접 표기하였다.

2. 全國平均 作付體系와 變化推移

가. 主要作目の 時間의 構成과 變化

畜의 경우 全國平均 作付順序는 벼를 중심으로 한 夏作과 麥類를 중심으로 한 秋作이 연계되었으며 미미하나마 春作이 소수 결합되고 있다. 즉 벼를 중심으로 한 콩·메밀·참외·수박·김장채소가 夏作으로서 80% 이상이었으며, 맥류·파·양파가 秋作으로 10% 이상, 그리고 감자·봄무우·봄배추·딸기가 春作으로 일부 作付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年度別 作目の 교체나 作付順序의 變化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으나 春作, 夏作과 秋作의

의 作付比率은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특히 1985년부터 맥류는 현격한 감소를 보인 반면에 벼와

시설재배의 증가가 刮目할 만하다<그림1>. 田의 경우는 作付體系가 番에 비해 作目의 數가

그림 1 全國平均 番의 作付體系 推移

구 분	작 부	순 서	총 식부면적
1982	감자, 봄배추 딸기, 봄무우	벼(77.0) 콩, 매밀, 팔, 고추, 기타채소, 조, 참깨	보리(9.1) 마늘, 맥주보리, 시설 양파, 밀, 파 1,515,179
		참외, 수박	가을배추, 가을무우
1985	봄배추, 딸기	벼(80.3) 콩, 고구마, 고추, 기타채소	보리(6.6) 시설(6.0) 맥주보리(1.9) 마늘, 양파, 파 1,516,821
		수박, 참외	가을배추
1987	딸기, 감자 봄배추, 봄무우	벼(81.7) 콩, 고추, 기타채소, 참깨, 고구마	보리(6.5) 맥주보리(1.2) 마늘, 파, 시설재배 1,510,993
		수박, 참외, 오이, 토마토	가을배추

1) (%)는 총 식부면적에서 해당품목의 식부비중.

2) ——은 총 식부면적에서 식부비중이 0.1~1%인 품목.

자료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 통계연보」, 각년도.

그림 2 全國平均 田의 作付體系 推移

구 분	작 부	순 서	총 식부면적
1982	감자(2.6) 봄무우(1.3) 봄배추(1.2)	콩(14.6) 팔(3.0) 기타두류(1.1) 고추(9.6) 옥수수(2.4) 매밀(1.1) 참깨(5.2) 들깨(1.9) 벼(1.0) 고구마(3.8)	땅콩, 뉘두, 기타채소, 면화 양배추, 수수, 조, 생강 밀 (1.2) 파 (1.5) 마늘 (1.7) 양파, 시설, 호밀 1,163,117
	딸기, 시금치, 상치	수박(1.1) 참외, 당근, 오이, 호박, 토마토	가을무우(2.5) 가을배추(2.3)
1985	감자(3.1) 봄배추(1.3) 봄무우(1.3)	콩(13.8) 들깨(2.5) 벼(1.4) 기타두류, 기타채소, 매밀, 뉘두, 조 고추(10.7) 고구마(2.5) 땅콩(1.1) 양배추, 생강, 면화, 수수 참깨(6.7) 옥수수(2.4) 팔(2.1)	보리 (5.8) 맥주보리(4.1) 파 (1.8) 마늘 (2.6) 시설, 양파, 밀 1,075,193
	시금치, 딸기, 상치	수박(1.6) 첨외, 당근, 오이, 호박, 토마토	가을무우(2.0) 가을배추(2.0)
1987	감자(1.7) 봄배추(1.4) 봄무우(1.2)	사과(3.5) 포도(1.5) 밀감(1.5) 복숭아(1.2) 콩(13.4) 팔(2.9) 기타두류(1.5) 고추(8.1) 벼(2.5) 매밀(1.1) 참깨(3.5) 고구마(2.3) 들깨(3.5) 땅콩(2.0)	감, 배, 자두, 기타과실 보리 (5.7) 마늘 (3.2) 맥주보리(2.5) 파 (1.6) 양파, 시설재배 1,086,736
	시금치, 상치 딸기	수박(1.5) 당근, 오이, 참외, 호박, 토마토	가을무우(1.9) 가을배추(1.6)
	사과(3.6) 밀감(1.7) 포도(1.6) 복숭아(1.3)	감, 배, 기타과실, 자두	

1) (%)는 총 식부면적에서 해당품목의 식부 비중.

2) ——은 총 식부면적에서 식부비중이 0.1~1%인 품목.

자료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연보」, 각년도.

훨씬 다양한 점을 먼저 지적해 볼 수 있다<그림2>. 作付順序가 두류와 고추가 중심이 된 夏作과 맥류를 主軸으로 한 秋作으로 연결되었으며 春作이 일부 결합되고 있다. 즉 두류·고추·깨·잡곡·김장채소 등이 夏作으로 50% 이상이었으며 맥류·파·마늘 등이 20% 이상으로 秋作, 감자·봄채소가 5% 이상으로 春作, 그리고 과일 및 시설재배가 5% 이상 作付되고 있었다. 그러나 年度別 變化에서 植付率은 다소간의 變化를 보이나 作物構成면에서는 거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全體的으로 두류와 맥류는 감소추세인 반면에 과일, 施設栽培, 채소류는 增加勢를 나타내며 作付順序는 이렇다할 變化가 없다.

나. 主要 作目의 植付比率의 구성과 변화

畠의 경우 夏作인 벼가 80% 정도의 植付率을 차지하고 맥류가 10% 정도로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미맥이 全體의 90%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여전히 미맥 중심의 主穀農業이라는 것을 再確認할 수 있으며, 耕地의 空間的 構成 즉 植付面積의 比重의 變化 추이도 벼와 施設栽培에는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田의 경우에는 아주 多樣한 作目이 재배되었기 때문에 畠과 같이 두드러지게 높은 植付率을 나타내는 作目은 없으나 두류와 맥류는 10% 이상의 높은 식부율을 나타냄으로써 여전히 主要田作物임을 立證하고 있으며, 作付順序 및 植付面積 構成을 보면, 夏작이 60% 정도, 그리고 秋작이 20% 이상, 春작과 과수가 각각 5% 이상으로 夏작을 中心으로 한 秋작이 結合된 田作付體系를 構成하고 있다. 年度別 變化推移를 볼 때 春작의 경우 그 구성비가 크게 변화함을 보

여 주지 못하였다. 夏作의 경우에는 두류, 잡곡, 고구마가 다소 감소된 반면 高所得特作으로 認識된 고추, 깨 그리고 가을배추가 增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秋작의 경우에는 麥類가 크게 감소하는 반면, 역시 經濟作物에 속하는 마늘과 파는 다소 증가되었으며, 포도, 밀감, 복숭아, 시설재배 등도 增加되는 傾向을 보여 준다.

3. 大都市의 作付體系와 變化推移

가. 主要 作目의 時間的 構成과 變化

1 서울의 경우

서울 지역 畠의 作付順序를 概觀해 보면, 봄채소가 主種인 春作과 거의 90%에 가까운 米作 위주의 夏作, 그리고 파와 施設栽培가 소수 結合된 秋작으로 連繫되고 있다. 특히 서울 근교는 全國平均 畠의 米麥中心의 作付體系를 형성하는 것과는 달리 基幹作目으로서 벼와 從作目으로 채소가 결합된 作目構成을 나타내며, 春·秋작이 적으로 前述한 바와 같이 畠의 利用率이 낮게 된다. 그리고 畠의 作付順序의 推移를 볼 때 거의 동일한 形態를 보여 준다<그림3>

田의 경우는 수많은 作目이 多樣한 時間的 構成을 갖고서 식재되었기 때문에 한두 개의 작목으로 작부순서를 규정하기 힘들 정도로 多樣하지만, 봄채소가 거의 대부분인 春작이 30% 정도, 秋작인 파가 20% 정도로 植栽되었으며, 50% 정도의 果樹와 10% 정도의 施設栽培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規定할 수 있다<그림4>.

2 부산의 경우

부산 근교 畠의 作付順序는 벼를 中心으로 한 夏작이 주를 이루고, 상당한 比重의 春·秋작이 연계적으로 植栽되는 作付方式을 취하고 있다.

그림 3 서울지역 畜의 作付體系 推移

구 분	작	부	순	서	총식부면적
1982	봄무우(1.6) 시금치 봄배추, 상치	벼(87.7)	기타채소, 콩	파 (1.4) 시설재배	ha 2,299
		오이, 호박	가을배추		
1985	상치(1.7) 봄무우, 시금치 딸기	벼(86.0)	기타채소, 콩, 양배추	파 (2.4) 시설(4.3)	1,401
		호박			
1987	시금치	벼(87.8) 기타채소(4.9)	콩	시설재배(2.1) 파	1,660
		오이			

1) (%)는 총식부면적에서 해당품목의 식부비중.

2) ——은 총식부면적에서 식부비중이 0.1~1%인 품목.

자료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연보」, 각년도

그림 4 서울지역 田의 作付體系 推移

구 분	작	부	순	서	총식부면적
1982	시금치(9.8) 봄무우(9.2) 봄배추(5.4) 상치 (1.9)	기타채소(7.3) 양배추(1.1) 콩(4.0) 벼(1.1)	고추(2.1) 들깨, 옥수수, 기타두류, 팥, 고구마, 참깨, 메밀	파 (21.4) 시설(11.3)	ha 3,244
	감자, 딸기	호박(4.1) 오이, 참외, 토마토, 당근			
1985	시금치(14.0) 봄무우 (9.0) 봄배추 (5.8) 상치 (2.7) 딸기, 감자	기타채소(4.3) 콩(1.9) 양배추, 기타두류, 옥수수, 고구마, 팥, 참깨	고추(1.5) 들깨(1.2)	파 (14.8) 시설(4.8) 마늘	2,358
		호박(3.7) 오이, 당근, 참외, 토마토			
1987	시금치(13.1) 상치 (10.6) 봄무우 (9.9) 봄배추 (4.4) 감자	기타채소(6.4) 콩, 벼, 들깨, 기타두류, 참깨, 옥수수, 고구마	고추(1.0)	시설(11.2) 파 (14.5)	2,512
		호박(3.3) 오이(2.0) 토마토			
		배(3.4) 포도(1.8) 기타과실			

1) (%)은 총식부면적에서 해당품목의 식부비중.

2) ——는 총식부면적에서 식부비중이 0.1~1%인 품목.

자료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연보」, 각년도

즉 벼를 조합하여 夏作이 約 65%, 그리고 파, 施設栽培 中心의 秋作이 約 10%, 봄채소를 主軸으로 한 8% 정도의 春作이 서로 連繫的으로 植付되고 있다. 年度別 作付推移는 다소 變化를 보여 夏作의 植付面積은 감소하고, 반면에 春 ·

秋作의 植付面積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준다 <그림5>.

田의 作付順序는 他地域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作目이 난립하여 主作目을 끌어내기 힘들 정도 이지만 相對的으로 온화한 氣上條件과 聯關하여

그림 5 부산지역 출의 作付體系 推移

구 분	작	부	순	서	총식부면적
1982	봄배추(6.1) 감자 (1.5) 상치, 봄무우 시금치, 딸기	벼(53.7) 기타채소(2.2)	콩, 양배추, 고추, 기타두류	파 (7.6) 시설재배(6.2) 보리(1.6)	ha 5,999
	당근(2.7) 오이, 토마토, 수박, 호박	가을배추(3.9) 가을무우			
1985	봄배추(4.5) 시금치(1.3) 상치 (1.0) 봄무우	벼(57.0) 기타채소(2.1) 들깨(1.1)	양배추, 고추, 고구마, 콩	파 (5.8) 시설재배(4.9) 보리	5,828
	당근(1.8) 오이(1.5) 토마토, 호박	가을배추(1.2) 가을무우			
1987	봄배추(4.1) 봄무우(1.9) 상치 (1.4) 시금치, 감자 딸기	벼(50.7) 기타채소(5.1) 들깨, 고추, 콩, 옥수수, 참깨, 기타두류, 양배추	파 (9.5) 시설재배(4.6)	6,551	
	토마토(5.1) 당근(5.0) 오이(1.0) 호박	가을배추, 가을무우			

1) (%)는 총식부면적에서 해당 품목의 식부 비중.

2) ——은 총식부면적에서 식부비중이 0.1~1%인 품목.

자료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연보」, 각년도.

그림 6 부산 지역 田의 作付體系 推移

구 분	작	부	순	서	총식부면적
1982	봄배추(7.2) 상 치(5.0) 시금치(3.5) 봄무우(3.0)	기타채소(4.1) 콩 (2.4) 고 추(1.2)	기타두류, 고구마, 들깨, 양배추, 벼, 참깨	파(20.0) 시설(4.7) 밀, 마늘	ha 1,484
	감자, 딸기	당 균(7.1) 호박(1.6) 토마토(2.4) 오이(1.4)	수박	가을배추(7.4) 가을무우(2.5)	
1985	시금치(5.7) 봄배추(5.6) 상 치(5.0) 봄무우(3.8)	기타채소(5.3) 양 배 추(1.7) 고 추(1.0)	들깨, 참깨, 콩, 기타두류, 고구마, 녹두	파(22.1) 시설(7.1)	1,831
	감자	당근(10.0) 토마토(2.0) 호박 (3.7) 오 이(1.4)		가을배추(4.9) 가을무우(2.0)	
1987	봄배추(5.4) 봄무우(5.0) 시금치(3.9) 상 치(3.0) 딸 기(2.1) 감 자(1.4)	배(5.4) 기타과실, 감 기타채소(5.7) 고 추(1.2) 벼 (3.9) 양배추(1.1) 콩 (2.5) 참 깨(1.0) 기타두류(1.5) 들 깨(1.5)	옥수수, 고구마, 메밀, 팔, 녹두	파(13.4) 시설(7.2) 양파, 보리, 마늘	2,013
	배(2.7) 포도(1.2) 감	당근(5.9) 토마토(3.0) 호박(3.5) 수박, 오이, 참외	가을배추(2.1) 가을무우(1.9)		

1) (%)는 총식부면적에서 해당 품목의 식부 비중.

2) ——은 총식부면적에서 식부비중이 0.1~1%인 품목.

자료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통계연보」, 각년도.

春作으로는 봄배추, 봄무우, 상치, 시금치가 主作을 이루고 있다. 夏作으로는 당근, 호박, 기타채소, 토마토에 이어 가을배추, 무우가 主種을 이루고 있다. 秋作으로는 파가 總植付面積의 2割을 차지할 만큼 중요시되며 또한 施設作目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그림6>.

3 대구의 경우

대구 지역의 作付順序는 벼 중심의 夏作과 보리 중심의 秋作, 그리고 약간의 春作이 植栽되며 米麥 中心의 2모작 體系가 그나마 耕地利用率를 높여 주고 있다. 年度別 作付順序에는 별 다른 변화가 없으나 夏作의 植付率이 증가하면서 秋·冬作의 麥類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市場性과 密接한 聯關係를 갖는 作付體系로 접근하기 위해 米麥 中心의 傳統的 體系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面貌를 보여 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여전히 米麥 中心의 作付體系가 지배적으로 나타난 점은 외형적인 면만을 볼 때,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傳統的 作付體系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8>은 대구 지역의 田 作付體系를 나타낸 것이며 이를 作付順序 側面에서 보면, 역시 사과의 名產地답게 果樹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를 포함한 夏作을 중심으로 春·秋作이結合된 形態의 作付體系를 나타낸다. 春作은 봄배추·무우·시금치·상치와 같은 봄채소를 위주로 한 채소 중심이다. 그리고 夏作은 기타 채소류와 두류, 고추, 토마토, 김장채소, 秋作은 파를 중심으로 소수 작물이結合되고, 果樹는 사과와 포도를 위시한 복승아가 많이 재배되고 있으며, 施設栽培는 他都市에 비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4. 主要 作目의 植付比率과 變化

1 서울의 경우

畠의 경우 主要 作目의 空間的 構成은 벼가 約 8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파, 시금치, 상치, 봄무우가 각각 約 2% 정도씩 植栽됨으로, 作目構成이 비교적 단순하여 畠利用率도 매우

그림 7 대구 지역의 畠의 作付體系 推移

구 분	작 부	순 서	총식부면적
1982	봄무우(1.2) 봄배추(1.1) 시금치, 상치 감자	벼 (61.0) 기타채소 (2.9) 콩 (1.8) 고추, 참깨 토마토, 오이, 호박, 참외	보리(14.6) 마늘 (2.6) 양파 (1.7) 밀, 시설재배 파
1985	봄무우(1.1) 봄배추, 상치 시금치	벼 (68.3) 기타채소 (2.9) 오이	보리 (11.4) 마늘 (4.8) 시설재배(1.1) 밀, 파, 양파 5,959
1987	봄배추(1.5) 상 치(1.2) 시금치, 봄무우 딸기, 감자	벼 (69.9) 기타채소 (1.7) 콩 (1.2) 토마토(1.3) 오이, 호박, 참외	보리(10.1) 마늘 (2.7) 파, 시설재배 양파 5,196

1) (%)는 총식부면적에서 해당품목의 식부 비중.

2) ——은 총식부면적에서 식부비중이 0.1~1%인 품목.

자료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연보」, 각년도.

그림 8 대구 지역 田의 作付體系 推移

구 분	작 부	순 서	총 식부면적	
1982	봄배추(4.5) 상 치(3.7) 봄무우(1.7) 시금치(1.5) 딸기, 감자	기타채소(7.7) 벼 (2.0) 콩 (3.9) 참깨(1.8) 고 추(3.3)	파 (12.5) 보리(2.2) 시설, 밀	ha 4,145
		기타두류, 들깨, 팔, 메밀 고구마, 수수		
	토마토(3.9) 오이(1.3) 호박(1.2)	당근	가을배추(4.8)	
	사과(13.0) 포도(11.2) 복숭아(5.0) 자두(2.3)		배, 기타과실, 감	
	상 치(9.9) 봄배추(5.2) 봄무우(2.9) 시금치(2.7) 딸기	기타채소(7.2) 고 추(2.8) 콩 (2.5) 참 깨(1.8)	기타두류, 양배추, 고구마, 들깨, 평콩, 옥수수, 벼, 팔	
1985	토마토, 오이, 호박, 당근		파 (16.6) 보리(1.2) 시설, 마늘 밀, 양파	4,335
	포도(12.0) 사과(11.1) 복숭아(5.8) 자두(2.4)		가을배추(3.5) 가을무우(1.8)	
	포도(16.1) 복숭아(9.6) 사과(8.0) 자두(2.2) 기타과실(1.5)		기타과실, 배, 감	
1987	봄배추(7.1) 상 치(5.9) 시금치(1.7) 봄무우(1.6) 딸기, 감자	기타채소(6.1) 참 깨(5.0) 콩 (2.6) 고 추(2.1)	기타두류, 벼, 들깨, 팔, 메밀	ha 5,334
	토마토(1.6)	호박, 오이, 수박	가을배추(2.5)	
	포도(16.1) 복숭아(9.6) 사과(8.0) 자두(2.2) 기타과실(1.5)			
	1) (%)는 총식부면적에서 해당품목의 식부 비중. 2) ——은 총식부면적에서 식부비중이 0.1~1%인 품목.			
	자료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 통계연보」, 각년도.			

낮게 나타났다. 또한 作付比率의 變化를 보더라도 春作의 상치가 다소 增加하고 봄무우가 減少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큰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결국 畜의 경우는 주로 主穀을 위한 生產基盤 이외에는 다른 作物을 위해서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 3>.

田의 경우, 單一作目으로 특히 많이 植付되는 作目은 春作의 시금치와 秋作의 파였으나, 春作의 경우는 시금치, 봄무우, 봄배추가 總植付面積의 30% 정도의 比重을 차지하며 夏作은 기타 채소류, 두류, 김장채소, 호박이 主種을 이루며 역시 總植付面積의 30% 정도 식부되었다. 그리고 秋作은 파를 중심으로 10% 가까이 植付되었으며 果樹의 경우는 총식부면적의 4% 가까이 田에서 植栽되었다.

植付比率의 變化를 보면 시금치·봄무우·상

치 같은 봄채소가 增加趨勢인 반면에, 봄배추를 포함한 대다수의 夏作의 比重이 減少하는 추세에 있다. 그리고 果實類는 거의 안정세를 보인 반면에 市場性에 敏感하게 반응하는 施設栽培는 크게 增加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2 부산의 경우

主要 畜作物의 植付比率을 보면, 總植付面積의 5割 정도가 米作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외에 春作으로 봄배추, 무우, 상치 및 기타 채소류가 1割 미만의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最近 들어 夏作으로 토마토, 당근, 오이, 기타 채소의 比重이 높아져서 16%, 그리고 秋·冬作으로 파 및 시설재배가 14~15% 수준을 차지한다. 부산의 畜作付體系는 그밖의 도시에 비해 米作의 비중이 현저히 낮으며 채소류의 春秋作이 擴大되면서

畠을 보다 集約的으로 利用하는 것을 나타났다.

年度別 變化推移를 보면 春作의 경우는 시금치와 상치가多少增加된 반면 감자의 植付率이 떨어져 봄채소류 중심 作付體系가 되었다. 夏作의 경우는 벼의 植付比重이 감소하여 50% 수준으로 떨어지는 반면 채소류의 比重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秋作은 파의 파종면적이 增加하면서 보리는 거의 斷絕된 狀態로 나타난다.

田의 作目에서 가장 比重이 큰 것은 秋作의 파로 2割 정도의 식부율을 나타내고 있다. 作付順序別로 보면 春作의 경우는 봄채소류가 大多數로 20% 이상의 식부율을, 夏作은 30% 이상의 植付率을, 秋作은 13~22%의 植付率을, 그리고 10~15% 정도의 果樹와 施設栽培가 이루어짐으로써 田이 年中 利用되고 있다. 특히 부산의 경우는 春·秋作이 많이 이루어졌으며 파, 당근, 봄배추, 시금치, 봄무우 등의 파종면적이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主要 作目의 構成은 해가 바뀌어도 거의 變化하지 않았으나 구성비율이 春·秋作은 增加하고 夏作 및 果樹는 減少하는 추세이며, 傳統的栽培作物이라 할 수 있는 김장채소와 두류, 과채류, 서류 등은 점차 比重이 減少하고 있다. 반면에, 시금치, 상치, 봄무우, 봄배추, 당근 등을 最近 크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3 대구의 경우

대구 지역 畠의 作付比重은 米麥의 거의 8割 정도 植栽되었기 때문에 全國平均의 그것과 가장 類似한 作付體系를 形成하고 있다. 특히 主要 作目이 벼, 보리, 마늘인 점으로 보아 過去부터 踏襲된 作付體系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年度別 變化推移를 보아도 米麥 中心의 作付

體系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 構成比를 볼 때 麥類의 減少가 현격한 점은 最近 傳統的 作付體系를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미미하나마 엿보이기도 한다.

田의 경우, 夏作이 中心을 이루고 春秋作이 多數植栽되어 植付比率은 거의 비슷하지만 특히 과일의 식부면적이 여타 지역보다 현저히 높은 점은 特記할 만하다. 그리고 여타 도시의 겨우에는 두드러지게 많아 植栽되는 作目이 거의 없이 총식부면적의 1~5% 수준에서 수많은 作目이 多樣하게 栽培되고 있다. 그에 비해서 대구의 경우는 10~15% 정도의 높은 植付率을 갖는 作物이 상치, 사과, 포도, 파 등 4~5개 품목이나 되었으며, 그 중 과일이 2개 품목이나 되어 여타 작물이 相對的으로 적게 栽培되면서 特定 作目에 特化된 現象을 指摘해 볼 수 있다. 最近 作付比率의 推移는 春秋作은 증가된 반면 夏作은 減少되고 있으며, 一般的으로 大都市地域 農業形態인 自由式 作付體系로 서서히 变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부체계의 变모가 농산물 개방압력이 가속되는 현실에서 더욱 농업소득 문제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면이 우려된다. 특히 대구 지역은 포도와 복숭아 식부면적이 최근 증가해 왔으며 장려 대상 품목인 사과는 그 면적이 감소했다.

IV. 作付體系의 比較指標 및 大都市 作付體系의 特徵 比較

지금까지 檢討한 각 지역의 作付體系에 관한 내용을 몇 가지 比較指標를 설정하여 그에 따라 그 特徵을 要約하고 상호 비교해 보고자 한다. 여러 가지 經濟 또는 經濟外的 指標가 고려될

수 있는 내용은 작부체계의 外形的 특징을 비교하는 데 필요한 지표가 요구된다. 따라서 大都市間 作付體系의 외형적 특징을 비교하기 위한 주요 지표로서 耕地利用率, 채소류 및 施設栽培의 植付比率, 主要 基幹作物의 變化, 主要作物의 數를 比較指標로 설정한다.¹ 이상 4가지를 비교 지표로 설정하는 주요 이유와 각 지표에 따른 지역별 작부체계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지이용률’은 地代와 관련하여 土地資源利用이 集約的인 동시에 대도시 지역의 상대적으로 높은 就業機會를 反映하는 尺度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대는 耕地利用率에 正의 관계로 작용할 것이며 대도시 지역의 높은 就業機會는 경지이용률에 負의 作用을 하는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年度別 耕地利用率 推移에서는 대도시 주변의 경지이용률은 점차 상승하는데 반해 全國平均值는 減少하는 현상을 보여 준다. 대도시 간의 比較에서는 특히 田의 경우 서울 지역의 경지이용률은 1985~87 平均 166%로 가장 높고, 다음은 부산이 148%, 대구가 136%로 각각 나타났다. 1987년의 경지 이용률은 3개 지역 모두 이 평균치를 넘어서고 있다. 畜의 이용률은 거울철 기온 및 二毛作으로 보리 파종이 가능한 지역과 불가능한 地域間의 差異가 크게 작용하며 부산, 대구, 서울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채소류 및 施設栽培의 植付比率”은 大都市地域 農業의 典型的인 특징을 나타내는 하나의 指標라고 볼 수 있다.

¹ CID(Crude Index of Diversification), RID(Refined Index of Diversification) 또는 LQ(Location Quotient) 등의 指數를 이용하여 비교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본 연구의 범위에서는 큰意義가 없으므로 생략함.

本研究에서도 전국평균치와 비교할 때 3大都市의 作付形態는 이 指標에 의한 도시형 농업의 特徵이 뚜렷이 나타난다. 畜의 경우는 부산의 植付比率이 월등히 높아 他都市와는 比較가 안 될 만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田의 경우는 채소류 및 施設栽培의 식부비율이 서울, 부산, 대구의 順으로 나타나며, 서울은 總植付面積의 8割 以上을 차지하고 있다. 대구 지역의 그 植付率은 5割 未滿으로 2割 水準의 전국 평균치보다는 훨씬 높지만 서울이나 부산에 비해서는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都市型農業의 程度를 반영하는一面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셋째, 主要 作物의 變化 程度는 商業農時代를 맞아 변화하는 경제 여건에 적응하는 농업경영자의 意識水準 또는 市場經濟에의 적응 수준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總植付面積의 4% 以上을 차지하는 作物을 主要作物의 對象으로 할 때 畜의 경우 부산 지역이 作物選擇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다음 서울, 대구의 順으로 변화의 정도를 보여 준다. 부산의 경우 1982년도에 벼, 봄배추, 파, 시설재배가 각각 4% 이상의 식부비율을 차지했으나 1987년에는 토마토, 당근 그리고 기타채소류가 新規作物으로 添加되는 변화를 보여 준다<表3>.

田의 경우는 4% 이상의 식부비율을 차지하는 作物의 數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변화의 정도도 높다. 都市別 變化程度는 부산과 서울이 큰 편이며 대구는 相對的으로 保守的인 性向을 보여 준다.

대구의 경우 총식부면적의 4%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作物으로 1982년에 사과, 복숭아, 포도, 파, 봄배추, 가을배추, 기타채소를 들 수 있었으나 1985년에는 新規作物으로 상치가 포함되고 가을배추가 빠졌으며, 1987년에는 참깨가 포함

表 3 大都市 作付體系의 主要指標比較

		1982				1985				1987				
		I	II	III		I	신 규 작 목	제 외 작 목	III		I	신 규 작 목	제 외 작 목	
				2% 이상	4% 이상				2% 이상	4% 이상				
畜	전 국	0	벼, 보리	2	2	6.0	시설		3	3	0			2 2
	서 울	3.0	벼	1	1	8.4	시설재배		3	2	7.0	기타채소	시설재배	3 2
	부 산	28.7	봄 배추 파 시설재배	7	4	24.1			5	4	37.7	기타채소 토마토 당근		7 7
	대 구	9.5	벼 보리	4	2	9.9	마늘		4	3	8.4		마늘	3 2
田	전 국	20.1		11	4	23.3			13	5	20.5			11 3
	서 울	77.8	파, 시설재배 시금치, 봄무우 기타채소, 봄배추 호박, 콩, 가을배추	12	9	64.9		호박 가을배추 콩	9	6	84.4	상치		11 7
	부 산	71.2	파, 가을배추 배, 봄배추 당근, 시설재배 상치, 기타채소	13	8	81.3	시금치	배	13	9	64.4	봄무우	시금치 상치 가을배추	15 6
	대 구	48.0	사과, 복숭아 파, 기타채소 포도, 봄배추 가을배추	14	7	52.6	상치	가을 배추	13	7	43.8	참깨		12 8

주 ; I : 식부비율 1% 이상인 채소류 및 시설재배의 식부면적 비중의 변화.

II : 주요작목의 변화 및 변화작목 내용(식부비율 4% 이상작목의 경우).

III : 식부면적비율 2% 이상인 품목수와 4% 이상인 품목수를 각각 나타냄.

되었을 뿐 다른 변화가 없었다.

넷째, 基幹作目을 중심으로 한 주요작목의 數를 비교지표로 한다. 즉 總植付面積의 比率이 2% 이상 또는 4% 이상을 차지하는 작목의 수가 어느 정도인가는 그 지역의 農業經營의 多角化 내지는 複合化 정도를 파악하는 尺度가 될 수 있다. 이것을 하나의 指標로 하여 각 지역의 作付體系 내지는 經營組織의 特徵을 보면, 畜作의 경우는 부산 지역이 4% 이상 作目的 數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며 多角經營的 性向을 다른 都市에 비해 높게 보여 주고 있다.

田의 경우는 3個 地域 모두가 全國平均值에 비해 多角經營的 性向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서울, 부산, 대구 3大都市를相互 比較해 보면 2

% 이상의 作目數에서는 부산, 대구, 서울의 順으로 볼 수 있으나 4% 이상을 차지하는 作目的 수는 年度別 變化가 심해 그 順位를 決定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앞 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구 지역의 경우는 다른 지역과 달리 사과, 복숭아, 포도와 같은 果實類가 높은 植付比率을 차지하는 作目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安定된 作부체계를 維持하는 반면 相對的으로 都市型 作付體系가 갖는 多樣性은 不足하다고 볼 수 있다.

以上의 分析內容에서 指標에 따른 各地域의 特徵이 도시의 크기, 自然條件, 그리고 그 地域 農民들의 農業經營에 관한 인습 및 認識의 程度 등에 따른 意思決定의 차이는 대도시마다 매우 상이한 作付體系를 형성시키고 있음을 지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은 作付體系의 外形的 特徵을 요약·검토한 것이고 이는 지역의 작부체계가 보다 效率的이거나 經濟性面에서 보다 最適作付體系로 접근하고 있는 지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研究의 범위를 벗어난 다음 단계의 研究課題가 될 것이다.

V. 要約 및 結言

作付體系란 바로 우리 농업의 형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이 어떤 形態를 갖추고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 농업의 國民經濟的 役割과 농가경제의 현재 및 미래가 결정된다. 本稿에서는 전국의 작부체계와 연관해 대도시 작부체계의 특징을 파악하고 대도시간의 차이점을 검토함으로써 作付體系의 外形的 特徵을 분석하였다. 본절에는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표를 통한 대도시 작부체계의 특징 및 작부체계의 변화가 갖는 정책적 의의와 문제점을 결론적으로 약술해 보고자 한다.

작부체계의 특징을 비교하기 위한 指標로써 '경지이용률', '채소류의 식부비율', '基幹作目 및 主要作目的 동태적 변화내용' 그리고 '그 主要作目的 數'를 설정해 본 결과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인지해 온 都市型 作付體系의 특징이 전술한 바와 같이 뚜렷이 부각되고 있다. 즉 토지의 집약적 이용을 반영하는 耕地利用率의 면에서 地代論의 論理가 적용되고 있으며, 경영의 多角化 및 作目調整의 신축성 그리고 채소류 중심의 不定型의 作付體系와 같은 도시형 작부체계가 갖는 면모를 공통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도시의 크기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며, 비교적 유지하려는 보수적 성향이 매우 강하다.

대도시 지역은 작부체계상의 특징과 관련하여 農地轉用의 내용 또한 뚜렷한 차이점을 보여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農地轉用은 畑에 비해 田의 전용이 크지만 대도시 지역은 그 반대 현상을 냉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田畠간의 농업용 이용가치의 상대적 크기와 耕地轉用을 유발하는 농업외적 목적의 성격 및 전용 결정권자의 농지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의 정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農地利用率은 대도시일수록 더욱 높게 나타나며, 土地集約度를 고려한다면 地代論의 論理가 대도시 지역 농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대도시 주변 農地에는 資本收益 (capital gain)에 주력할 뿐 경지의 農業的 利用은 극히 방만하게 운용된다는 지금까지의 일반적 인식은 어떻게 評價되어야 할지, 하나의 문제로 提起된다.

마지막으로 최근 작부체계의 변화가 갖는 정책적 과제를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 작부체계의 主要 變化推移를 보면 한 마디로 農政의 近視眼的一面을 통감하게 된다. 1980년대 작부체계의 수정 방향을 보면 도시·농촌 모두가 畑의 경우에는 미미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田의 경우는 두류, 잡곡, 고구마와 더불어 특히 맥류의 파종이 두드러지게 감소하는 반면 高所得作目으로 인식하는 고추, 깨, 마늘, 포도, 밀감, 복숭아, 그리고 시설재배 등을 증가시켜 왔다.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온 농산물 개방압력의 내용 및 개방 내용에 비추어 작부체계의 이러한 추세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금까지 國內 生產基盤을 증강시켜 온 상당수의 作目들은 개방품목으로 지정되었고, 오히려 개방내용과 主要 農政目標의 추구를 위해서 확대·정려되어야 할 사과, 배, 맥류, 서류와 같은 作目들

(김충실 1985)은 정체 또는 감소되어 온 일련의 현상을 낳고 오늘의 우리 農業 또는 農政의 實像과 한 社會의 가장 보수적 집단으로 지칭되는 농민들의 저항적 동요를 어떻게 評價해야 할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조정될 수밖에 없는 作付體系는 그렇지 않아도 저항적 몸짓으로 동요하는 작금의 農心에 또 한 차례 파문을 낳게 되겠고,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社會·政治·經濟的 資源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의 課題가 과거의 질책에 머물기보다는 미래를 향한 현명한 課業의 설정에 있다면, 오늘의 변화된 무역정책·농업경제적 여건하에서 아파해야 할 현실의 경험을 되살려 한국 농정의 基本骨格을 구상하는 차원에서 농정의 長·短期的 目標를 명백히 설정하여 「韓國의 作付體系」의 선택에 관한 보다 과학적인 연구가 시급히 요구되는 時期라고 본다.

經濟的 基準 또는 그밖의 基準에서 볼 때 어느 지역의 作付體系가 얼마나 효율적이며, 그

作付體系가 效率性면에서 어떻게 변모하고 있느
지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는 紙面 관계상,
本研究를 基礎로 하는 후속 연구과제로 남겨 두
기로 한다.

参考文獻

- 국립농업경제연구소, 「農畜產物의 立地位置에 관한 研究」, 1975.
 金忠實, “食糧需給方向 設定을 위한 政策의 研究,” 고려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5, pp.93-111.
 농수산부, 「第5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 農業部門 青寫真」, 1981.
 서종혁, “지역농업개발의 概念과 研究과제,” 「지역농업 개발의 정책방향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6.
 최양부외, 「지역농업개발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7.
 최양부, “한국농업발전의 방향과 지역농업개발,” 「지역 농업개발의 정책방향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6.
 허신행, 「地域農業과 複合營農」,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4.